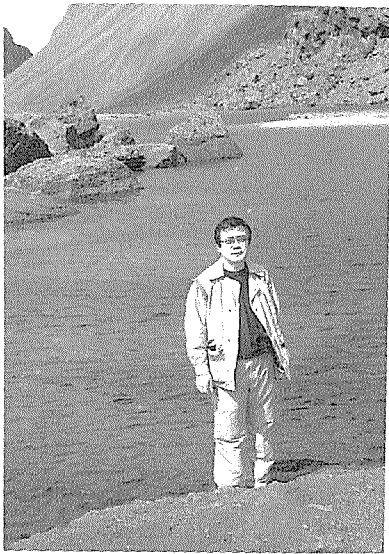


天池는 말이 없는데 눈물은 두만강되어

金榮洙 / (株)建築國 종합건축사사무소



①

- ① 天池에서 보석천쪽을 배경으로 선 필자
- ② 색깔조차 갈라놓은 두만강 철교와 주위의 산하들(상류쪽)
- ③ 오엽은 심하지만 유유히 흐르는 두만강 (모터보트 위에서)

작년 8월 31일.

새벽 3시가 넘어서야 도착한
天池賓館이다.

16시간이나 자동차를 달려 감격에 못이겨
밤을 지새운, 백두산 아래에 있는 종착지의
빌라다. 長春에서 延邊을 가로질러 밤길을
달렸는데, 비까지 억수처럼 쏟아붓는 초조와
고독의 여로였기에, 더욱 더 마음속 깊이
새겨진 추억이 된 것 같다.

가도 가도 막막한 기다림과 외로움이 시간이
흐른 지금에야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정말 멀고도 지루한 산길 빛길이었다.
동포애가 가득한 조선족 飯店들에서 한기와
허기를 달래는 것도 잠깐, 차안에서는
졸다가 깬다가 하면서 행여나 길이라도 잘못
든 것이 아닌지 물어보다가는 또 잠들어
버리기가 일쑤였다. 다 왔다고 함성을
지르다가 다시 차에 올라 한시간을 더 달려야
했던 二道鎮, 십야의 빛속에서도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던 美人松들의 마을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다.

아침 9시.

그렇게도 짓궂게 내리쬐던 철혹속의
소낙비였는데, 어떻게 된 기적인지
아침햇살이 한없이 밝게 빛나고 있었다.
간밤의 비대신 아침의 햇빛이 쏟아지는
길 건너 원시림은 더욱 높이 솟아 보였고,
빌라의 뜰과 앞 차길은 가랑비가 내리다 멎은
것처럼 축축히 젖어 있을 뿐, 非鋪道의
노면과 배수는 입산물의 수송로답게 훌륭한
것이였다. 바로 옆의 白山管理站(길림성
장백산 자연보호구 관리국)에서 입산수속을
하는 동안 무료하고도 긴 것만 같은 1시간을
보냈다.

10시.

드디어 백두산 천지로 출발한다. 마당을
벗어나 잘 닦아놓은 산길로 차가 달린다.
뽀뽀하게 늘어 선 자작나무의 환동치가
햇살속에 눈이 부시다. 바닥에 깔린
고사리의 잎새들은 투명한 녹색으로 한없이
상상하다. 갈수록 하늘을 찌르는 침엽수들이
흘러가는 구름을 잡을듯이 키재기를 하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노랑과 자주색 들꽃이
바람에 하늘거리며 쓰러진 고사목의
등걸사이로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있다.

마무리 공사중인 '장백산 公路 지회부'의
가건물 옆엔 조그만 붉은 열매들이
주렁주렁한 이름모를 나무가 널려있어
원시의 적막을 깬 인간들을 오히려 반기는 듯
눈맞춤이 강하다.

40분을 달렸을 때다. 침엽수 사이로
하늘이 확 트이면서 雲峰능선이 시야에
나타났다. 백두산, 한여름이라 눈대신
흰구름을 머리위에 이고있는 長白의
우람함이 신비로운 감격으로 가슴을
파고든다. 차에서 내려 백두산 영봉을
우러러보며 한참을 걸었다. 정말 내가
백두산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는 순간
모든 상념조차 다 가셔버린 무아경의
스스로를 발견하고는 다시 차에 오른다.
조금을 달리면 왼쪽으로 또 한갈래의
등산길이 보이는데 얼마를 가다보면
산봉우리가 보이질 않는다. 한참후에야 누런
갈색의 몸체를 지닌 기이한 봉우리가 다시
나타나면서 흰 폭포의 줄기가 백두의 仙境을
수놓고 있다. 또 사라졌다가는 더욱 가까이
다가와 있는 비룡폭포(중국선 장백폭포)가
그야말로 아름답다.

오른쪽 계곡으로는 저멀리 岳樺의 숲이 林海처럼 잔잔이 깔리고 길아래엔 白河가 장백의 화신인양 소용돌이치며 힘차게 흘러 내린다.

스키장을 위한 새 빌라가 지어지고 있는 天池水文站 근처를 지나면, 찢고 깎은듯한 검은 절벽산이 코앞에까지 와 닿는듯 하다.

11시 30분.

찾길 이 끝나고 천지를 향해 발걸음을 재촉한다. 백하의 뚝길을 내려서서 흰 수증기가 뒤덮고 있는 왼쪽편의 허름하기 짝이 없는 온천장을 지난다. 조그만 다리를 건너 악화숲길을 돌아오면 바윗돌 능선 저앞에 비룡의 장관이 크로즈옴 되고 물소리까지 요란하기 그지없다. 저 뒤의 천지가 쏟아내는 68m의 비룡폭포는 민족의 한이 흘러 송화강의 원천이 된다.

태고가 숨쉬고 있는 단에는 하늘에 걸린듯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것만 같은데, 굴러내린 돌더미를 건너 뛰어오르다보면 호흡은 목끝까지 와닿고 땀은 온몸을 적시며 흘러 내린다. 절벽사이에 걸린 외길은 물에 젖어 있었고, 왼쪽 귀를 더욱 때리는 폭포의 굉음은 아찔하고 아슬함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었다. 용케도 빠져나왔다 싶으면 폭포 뒤쪽으로 천지에 이르는 평원이 펼쳐진다. 산용담을 비롯한 갖가지 희귀식물들이 꽃을 피운 채 산바람에 흔들리면서 끈질긴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나무도 자라지 않는 이 고지대에서 저토록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까지 추위와 강풍을 몰아친 백두의 시련이 오죽했을까 싶다.

12시30분.

폭포로 이어지는 백하의 물줄기따라 좌우로 차차 그 모습을 드러내는 천지. 감격에 겨워 함성을 울리면서 힘껏 달려가서는 펼쳐진 천지와 이를 감싸고 있는 백운봉, 장군봉 등 영봉들 앞에 마음을 가다듬고 눈을 감으며 정성껏 禮를 다해본다. 개인엔 정기를, 나라엔 통일을 빌어보면서 마음껏 애국가를 불러본다. 어느새 목은 메이고 눈물이 고였다. 조국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고향을 다시 찾는 사람처럼, 천지에 손을 담그고는 물밑의 환들을 손안에 모아본다. 사진의 천지보다도 꿈속의 백두산보다도 훨씬 크고 높은 그 수려한 장관에 새삼 놀란다. 한낮의 태양은 천지의 잔잔한 파도위에 부서지고, 천지에

몸을 담근 저 구름은 조국하늘쪽으로 바빠 흘러가고 있다.

천지는 조용하고 백두는 말이 없는데 저건너 이북초소는 무엇이고, 내가 선 이자리는 중국이니 어찌된 일인가.

한모퉁이 돌아 補天石에 이르면 국경을 고집한듯한 낡은 철대가 또 나의 마음을 찢어 놓는다.

2백년전(서기 1702년)에 마지막 불을 뿜었다는 천지. 통일이 되고 국경을 찾을 때까지 참고 견딜 수는 있을 지가 궁금하다.

오후 2시 15분.

천지 주위는 바람이 거세지고 추위를 느끼기 시작한다. 모두들 앞서 내려가고 우리 일행이 마지막 아쉬움을 달래며 뒤를 따르고 있다. 그 마지막을 또 내가 혼자 걷는다. 일행과 뚝 떨어져서 바람소리와 물소리만 요란할 뿐 아무도 없는 빈 백두산을 뒤로 돌아보면서 영검속에 살고있는 한 인간의 외로움을 마음껏 되씹어 본다.

지금은 이북땅인 백두산, 한참 저 아래에 주을온천이 있고, 부모님은 이곳까지 와서야 아들인 나를 낳지 않았던가. 산 좋고 물 좋은 곳을 찾아 신령님을 만나고자 했다면 백두산 이곳과는 무관치 않으리라 생각하고 나 또한 이렇게 달려와서 흐느끼며 뉘우치고 있지 않는가. 백두산 봉우리위에 걸려있는 저 태양도, 바람과 구름이 빨려들어간 저 천지도, 내 몸과 마음의 한 구석일수도 있다는 오묘한 감정속에 스스로 깊숙이 빠져 버린다. 통기는 물거품 사이로 연하니 연한 옥빛이 흘러지고, 그 아래 물살에 나부끼는 초록이끼는 곱디 고운 비단결처럼 빛나 다시는 못볼 이곳의 조화같다. 신비로움에 떨며 생의 원점을 찾아 나선 한 나그네의 빈 마음을 여기에서 읽는다.

그 이튿날.

밤새 또 비가 내렸다. 두만강까지 강행군이다. 아침 8시에 천지비관을 떠났는데 松江鎮을 거쳐 정오에는 鷄南이라는 마을에 이르렀다.

넷가가 좋아 점심식사차 차를 세웠는데 그 마을은 조선족 70여호가 살고있는 전형적인 초가마을이었다. 비가 익어가는 논옆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만발하고 소달구지 뒤를 따르는 멍멍이하며, 초가집 처마밑의 고추와 옥수수에 돼지우리 위의 호박넝쿨과 나무담장의 나팔꽃 등이完전한 우리의



③ 옛고향 풍경 그대로다.

어랑촌 항일유적지를 둘러서 용정마을을 지나 해란강을 끼고 달려 延吉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 3시가 좀 지나서였다. 백산호텔에 짐을 푼 후 곧장 圖門으로 직행이다.

뿌르하통강이 굽이쳐 흐르는 아름다운 풍광이 너무나 이국적이었고, 자주색 들국화가 이어지는 산길위로는 흰염소가 한가로이 방목되고 있었다. 차가 겨우 비켜가는 낡은 다리를 건너 圖門口岸에 도착한 것은 5시 5분전. 이북으로 통하는 인도교 입구는 구안 건물에 가로막고 철문으로 막혀 있다. 제방에 올라서면 이북의 산하가 한눈에 들어 오는데, 철교의 가운데가 국경선이라 색깔까지 틀리게 구분한데는 아파오는 마음을 누를 길이 없었다. 백두산 천지로 두만강도 우리의 땅인데 이처럼 갈라놓고 말았으니 어찌할 것인가. 더구나 목가적 아름다움을 잃어버린 시커먼 두만강물을 보고는 상처뿐인 발길이었다. 사공도 없는 빈배(모터보트)에 올라 김정구의 눈물젖은 두만강을 몇번이고 불러 본다.

어둠이 깔려오는 두만강은 석양에 더욱 외롭고, 이북땅의 기적소리를 듣는 나그네의 서러움은 어느덧 눈물이 되어 흐른다.

언젠가 통일의 그날. 내가 태어난 주을온천을 거쳐 우리땅을 밟아가며 다시 이자리에 서서는 오늘의 이 감회를 다시 새겨보리라 마음 먹으며 두만강을 떠난다.

천지는 떠날 때 아무말도 없었는데 눈물은 이미 두만강되어 이렇게 울고 있다.